

단풍길 따라 82km 힘찬 페달

무주반딧불 미디어폰도 자전거대회 준비 착착... 11월 2일 최북미술관 출발

무주군은 11월 2일에 개최되는 2019 무주반딧불 미디어폰도 자전거대회(이하 2019 반딧불 미디어폰도) 준비가 한창이다.

30일 무주군에 따르면 2019 반딧불 미디어폰도에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 8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무주군은 선수들의 안전한 경주를 위해 지난 16일 코스별 도로노면 상태와 안내 표지판 설치 위치 점검 등을 마치고 구간별 교통안내와 유도를 위한 요원 교육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대회 코스는 무주읍 최북미술관 광장을 출발(08:00~)해 무풍면 오두재로 정상, 구천동 계곡길(설천면 소재지~구천동)을 거쳐 무주읍 국민체육센터 주차장까지(12:00~13:30) 총 82km구간(4~5시간 예상)으로, 특히, 구천동 계곡길(설천면 소재지~구천동)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구간이기도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문화관광과 서종열 체육진흥팀장은 "참가 선수단이 즐겁고 안전하게 대회를 임할 수 있도록 코스 선정부터 준비상황 점검까지 철저히 기



2019 무주반딧불 미디어폰도 자전거대회가 11월 2일 개최된다.

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민간회사가 주관하면서 빚어졌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관사도 공공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2019 반딧불 미디어폰도는 전북자연거연맹(회장 최병선)이 주최·주관하며 무주군과 무주군체육회가 후원하는 것으로, 대회 참가비도 지난해 8

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줄여 출전 선수들의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출전 선수 전원에게 점심 식사 대신 무주사랑상품권(인당 1만 원 권)을 지급해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기자

덕유산리조트로 떠나는 단풍 여행

주말·공휴일 곤도라 인터넷 예약제 시행중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덕유산 단풍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곤도라 예약제와 숙박 패키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가을 단풍철인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말·공휴일에 한해 관광곤도라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에서 탑승일 기준 14일 전부터 1인 5매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탑승일자 및 시간을 지정 예약하면, 예약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예약확정 문자가 발송된다. 당일 탑승시간 30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예약 문자를 제시 후 결제한 뒤 티켓을 발권해 탑승하면 된다. 강풍이나 낙뢰 등의 기상상황에 따라 당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관광곤도라 이용권이 포함된 숙박패키지를 이용하면 숙박과 관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다. 덕유산 곤도라 패키지에는 최근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잠자리를 선사하는 가족호텔 숙박과 관광곤도라 이용권, 세

인트 휴 사우나 이용권, 티볼 레스토랑 10% 할인권이 포함되어 있어 1박2일 코스로 무주덕유산리조트에 머물며 관광곤도라를 타고 덕유산에 올라 가을 단풍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위치해있는 덕유산(1,614m)국립공원 이번 주말인 11월 1일부터 2일 째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관광곤도라를 타면 1,520m 설천봉까지 쉽게 오를 수 있고 정상인 함적봉까지는 편안한 걸음으로 20분정도만 오르면 된다.

덕유산은 정량하기 그지없는 계곡과 정쾌한 능선, 전형적인 육산의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산 정상에는 주목과 구상나무 군락지가 있어 가을 산행이 운치를 더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함적봉은 덕유산의 정상이라 단풍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념사진을 찍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함적봉에서 중봉으로 가는 길목에는 주목과 구상나무 군락지도 볼 수 있다. /무주=전문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중요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

장수군은 30일 무진장소방서와 장수 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 등 화재 대비 '하반기 중요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을 장수향교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장수향교 인근 산불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72호로 지정된 장수향교 대성전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하고 소방차량 1대와 산불진화차량 1대, 구급차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장수향교 팀장은 "가을은 건조한 날이 지속되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이번 소방훈련을 통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화재로부터 소실되지 않도록 문화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119안전센터 설천119지역대 새단장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무주 119안전센터 설천119지역대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사 환경을 전면 개선하여 새롭게 단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설천119지역대 환경개선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천119지역대는 지난 지 2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건물로 직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근무환경이었다.

이번 환경 개선 비용은 무주군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개선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더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무주=전문기자

장수군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장수군은 3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 국민참여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국민 참여 지진대피훈련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 방송에 따라 책상과 탁자 아래 등 실내대피 후 진동이 멈춘 후 건물 밖 실외 대피장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사전에 행동요령 숙달 및 지진목외대피장소를 확인하는 훈련을 중점으로 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했다. 군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읍면사무소와 장수터미널을 훈련대상으로 선정해 시범훈련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비상 시 위기대응 및 초기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무진장소방서 장수 119안전센터의 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 착수

주민돌봄센터 개소식

진안군은 진안군주민돌봄센터 개소식을 갖고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돌봄사업은 돌봄센터를 조성하고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사업 중 하나다.

군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

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진안군주민돌봄센터는 진안읍(관산2길 10)에 지난 29일 동지를 틀었다. 군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돌봄센터를 조성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갑수 군의회 의장과 정대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지원단장을 비롯해 군 관계자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돌봄센터는 앞으로 2020년까지 약 4년간 마구동지구(진안읍 연구1동

과 중앙1동 일원)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된 주민에게 지역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상모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행복한 명품진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다니며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진정한 발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인적·물적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하반기 숲가꾸기사업 추진

진안군은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월까지 17억9000만원을 투입해 조림지 가꾸기 1035ha, 어린나무 가꾸기 200ha, 큰나무 가꾸기 130ha 등 1365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부귀산 군유림 및 사유림에 큰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55ha를 추진하고 있다.

숲가꾸기는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수목이 더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수목의 생육상태와 나이에 따라 조

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으로 다양하게 실행된다.

군은 특히 내년부터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한 풀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나무를 향후 우량 경제림으로 육성하여 산림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림지 가꾸기 1640ha, 어린나무 가꾸기 490ha를 추진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여성체육위원회는 30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수군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장수군여성체육위원회(회장황민하)는 30일 관내 7개 읍면 여성체육회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2019년 장수군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수군여성체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체육대회는 고리걸기와 제기차기 등 다양한 체육활동 행사가 진행됐다. 장수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여성

단체의 발전을 꾀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5번째를 맞이했다.

장영수 군수는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회원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질 높은 복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